

기후부·한전, 에너지 신기술 속도... 혁신 비즈니스모델 발굴

전력산업 산·학·연·관 전문 포럼 ESS·V2G 등 8개 분야 전문가 참여 5개월간 정기 회의서 신사업 진단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한국전력(한전)이 손잡고 에너지 신기술의 시장 도입과 정책화를 앞당기기 위한 '브레인 집단'을 본격 가동한다.

5개월 내 에너지신사업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전력산업 혁신방안을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기후부와 한전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산업 산·학·연·관 전문 포럼' 통합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에너지 신기술·신사업의 실행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전력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에 발족한 전문 포럼은 전력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기술 8개 분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송변전계통 ESS ▲배전망 ESS ▲그리드포밍



앞줄 좌측에서 네번째부터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 김동철 한전 사장,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한전

기반 차세대 인버터 ▲V2G(Vehicle to Grid) ▲VPP(가상발전소) ▲AMI(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 ▲공기열·수열 히트펌프 ▲바이오수소 등이다.

포럼에는 산업계 42명, 학계 27명, 연구계 11명, 정부·공공기관 34명 등 총 114명의 주제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과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비

롯해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통합 포럼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와 '실행력'이다. 포럼은 그간 일회성 발제와 토론에 그치며 후속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기존 포럼의 한계를 넘어, 연속적이고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 전면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각 포럼별 위원들은 향후 5개월간 월 2~3회의 정기·수시 회의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지연돼 온 에너지 신사업 분야 장애요인을 면밀히 진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기술의 실증사업부터 한전 기술주회사를 통한 기술사업화, 혁신기업으로의 기술이전까지 전 과정을 윈스톱으로 연결하는 페스트 트랙(Fast-Track)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전력산업을 둘러싼 새로운 의제가 도출될 때마다 포럼을 추가 또는 조정 운영하는 등 논의 범위를 지속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포럼에서 도출된 성과는 혁신기업들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포럼에서 도출되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는 기술·시장·정책이 따로 움직여서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며 "정부와 한전이 중심이 돼 산·학·연·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에너지 신기술이 실제 시장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산업부, 중견기업 35곳에 4660억 금융지원

수출·기술개발 등 유망기업 대출·1.0%p 금리우대 제공

산업통상부는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의 2026년 상반기 지원 대상으로 중견기업 35개사를 선정, 총 466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라이징 리더스 300'은 산업부와 우리은행이 공동으로 ▲수출 ▲기술개발(R&D) ▲ESG ▲디지털 전환(DX) 등 4대 유망 중견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상반기 선정은 지난 3월 공고를 시작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수출), KIAT(기술), 중견연(ESG), 산업지능화

협회(DX) 등 분야별 전문기관의 추천과 우리은행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선정된 기업은 자화전자, 실리콘투, 파워맥스, 닥터애그 등 총 35개사(중견 28개, 후보기업 7개)다. 이들 기업은 업체당 최대 300억 원의 대출과 함께 최대 1.0%p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금융지원 외에도 맞춤형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2023년~2027년까지 5년간 총 4조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할 예정으로, 그간 6차례에 걸쳐 190개 기업을 선정하고 약 1.8조원 규모 자금을 지원해왔다.

실제로 자동차 부품사인 A사는 300억 원을 지원받아 인도 현지 공장을 설립하며 신시장에 진출했으며, 정보통신

기업 B사는 280억 원의 자금으로 신규 AI 사업 R&D 및 사업화에 착수하는 등 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특히 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이 4월부터 연말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라이징 리더스 300' 사업을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 추진할 예정이며, 하반기 신청 공고는 오는 9월 중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그 밖에도 융자, 보증, 펀드 등 다양한 정책 금융을 동원해 중견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aT, 72억 투입 '농식품 수출기업' 돕는다

중동 전쟁 여파 기업 부담 완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2026년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농식품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추경 예산을 활용한다.

사업의 핵심은 중동지역 상황에 따른 물류비 상승, 운송 지연 등의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무역현안 대응'이다.

▲생산·수출기반 조성 ▲수확 후 관리 ▲운송 및 통관 ▲판로개척 지원 등 총 23개의 지원 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용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중동 지역에서 개최한 K-푸드 박람회. /aT

중동 지역 목적지까지 우회비용, 수출 화물의 반송비용, 현지 발생 지체비용 등을 포함한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물류, 보험 등 중동 전쟁과 직접 관련된 4개 메뉴에 배정액의 5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aT는 할당된 추경 예산 72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수부 수산시장 등 안전점검

오늘부터 2개월간 869개소 대상

해양수산부가 항만·어항시설과 여객선, 여객터미널 등 주요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해양수산시설 869개소가 대상이며, 점검기간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이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가 목적이다. 국민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항만·어항시설을 비롯해 여객선과 여객터미널, 수산물도매시장, 등대해양문화공간, 청사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전반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1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앞에서 '농협 자율성 보장 촉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농협중앙회

농협 자율성 논란... 직선제 재검토 요구

조합장들, 회의론 제기하며 반발

전국후계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가 헌법에 의거한 농협 자율성을 비롯,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지침에 따른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등에 회의론을 제기하고, 전면 재검토를 국회에 요청했다.

1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협의회 소속 조합장 150여명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앞에서 '농협 자율성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들은 ▲헌법과 협동조합 원칙에 기반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는 농협법 개정 즉각 중단 ▲조합원 직선제 전면 재검토 ▲농협 중심의 자율적 개혁 존중 등

을 촉구했다.

결의대회에서는 농협 자율성 보장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 낭독과 피켓팅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박정수협의회장은 "농협은 농업인이 만든 자조 조직"이라며 "개정안 논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율성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독립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행사 직후 결의문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결의문에는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되는 농협 개혁이 초래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협이 자발적인 혁신을 통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무보 안전활동 평가 'A등급'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역량을 인정받았다. 무보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A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체 1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무보는 준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A등급을 획득했다. 무보는 이번 평가에서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을 비롯해 안전보건 교육, 인식, 활동 참여 등 세부 항목 전반에서 고루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무보는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넘어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사에 대해서도 안전 인프라를 지원하는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서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